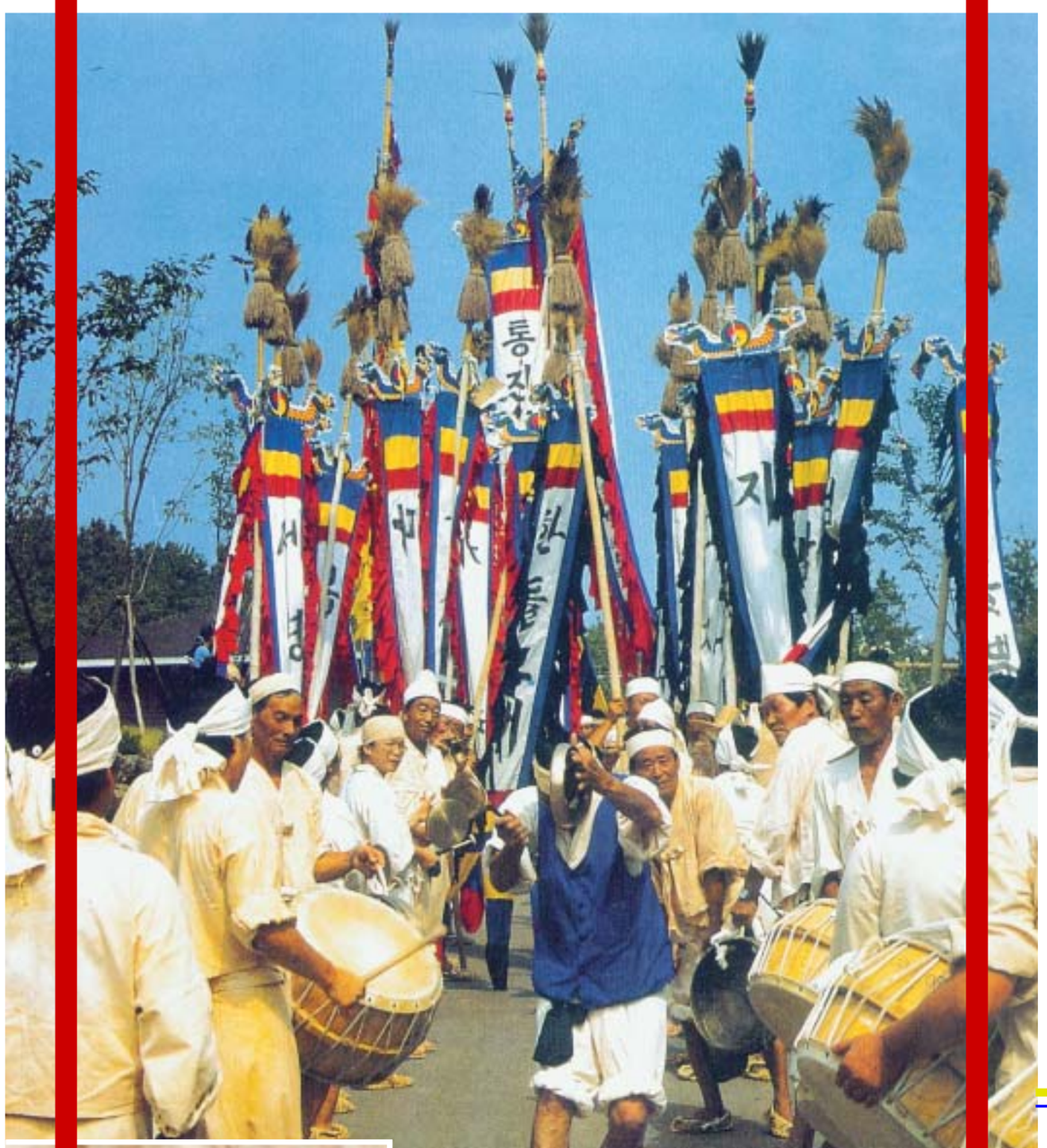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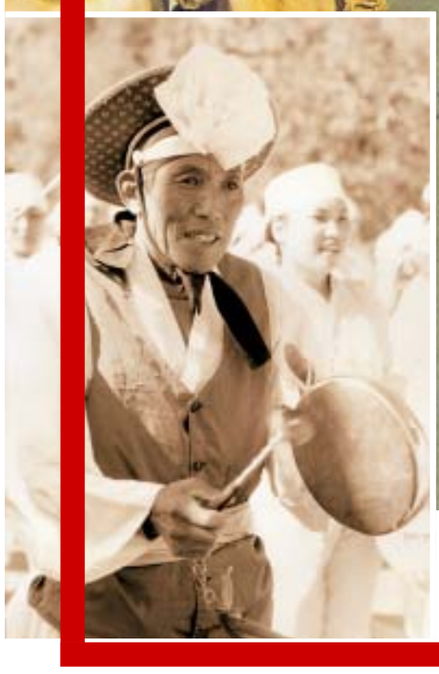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힘든 농사일서 여유·멋 찾는…

흥겨운 農心

48번 국도를 타고 강화 방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면 넓다란 김포평야가 시야를 압도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김포시 통진면 가현리)를 지었다는 김포.
그러나 기름지고 광활한 평야에는 논밭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야에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와 축사, 공장들이 거침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최근 김포 신도시 개발에 저항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펄럭인다.
풍요로웠던 농경문화와 개발이 공존하는 이곳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 통진두레놀이가
비옥한 농토를 배경으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6>

제23호 김포 통진두레놀이

닮통진문화회관에서 연습하고 있는 보존회 회원들.

'두레놀이'는 흔히 우리네 농경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놀이다.

한 해 농사를 위해 볍씨를 고르고 모내기를 하며, 여름철 무성히 자라난 잡초를 뽑는 등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농부들의 일상적인 행위이자 소리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많게는 250여명이 넘는 부락민들이 참여해 노동의 고단함을 놀이로 승화시켰던 김포 두레놀이는 현재 100여명의 보존회(상쇠 윤덕현, 회장 이진민)가 그 맥을 이을 뿐이다.

따스한 봄날씨를 만끽하며 도착한 김포는 파종을 앞두고 갈아엎은 논밭의 흙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물씬 풍겼다.

현재 보존회가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진문화회관 3층 연습실. 1층에서부터 정겨운 꽹과리를 비롯 북, 장고 등이 한데 어우러진 소리가 들려왔다. 경쾌한 타악기 소리가 가까워지자 20여명의 보존회 회원들이 상쇠(황인성)를 따라 멋진 길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 두세명이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연습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한폭의 그림같았다.

"요즘엔 사람이 없어서 명맥을 잇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야. 다행히 보존회 회원들이 열심이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지인들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60년대 이후 영농기법의 기계화와 농약 살포로 인해 전통적인 농법이 사라졌다.

이에 전통농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불려왔던 농요와 두레놀이는 무슨무슨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된지 오래다.

두레놀이는 단순히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공동체를 단결시키고 힘든 노동에도 삶의 여유와

97년 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98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

멋을 부렸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포는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서해바다와 접해있는 옥토지역으로 후덕한 인심과 함께 놀이 또한 매끄럽고 경쾌한 문화를 형성했다.

특히 통진두레놀이는 인접한 강화군과 고양시의 노래와도 사뭇 다른 장단의 농요를 지녔으며, 농사 짓는 전 과정을 세밀히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의 농번기에 공동작업을 벌이는 '두레'는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보(洑)막이 등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작업에 반드시 행해졌던 풍습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를 앞세우고 다섯방위를 상징하는 5방기와 마을기 40여개가 그 뒤를 따르며, 꽹과리·제금·징·북·장고·소고를 든 행렬과 함께 농군, 새참꾼, 각설이꾼 등이 한 패를 이룬다.

두레놀이는 첫 농사를 위해 겨우내 준비한 '볍씨 뿌리기'를 시작으로 굳은 흙을 고르기 위한 가래질과 써래질이 한바탕 벌어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는 용두레질이 펼쳐진다.

이어 한 해 풍년을 기원한 못자리고사가 열리며, 경기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찌기' 노래가 흥을 돋운다.

(받는소리) 쪘네 쪘네 나도 한짐 쪘네

(메김소리)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쪄보세/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일출동방에 해돋으니 한짐이라도 빨리 찌세

선소리꾼(상쇠)이 매김소리를 하면 농부들이 받는소리를 하는 가운데 고단한 노동을 이겨내려는 농심(農心)이 담겨있다.

이어 모내기와 새참먹기를 벌이고 물고싸움과 두레싸움이 한바탕 벌어진다.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자기네 논에 더 많은 물을 대기 위해 종가래꾼끼리 벌였던 물전쟁은 마을단위로 커진다.

마을간의 물고싸움이 끝나면 흥겨운 농악놀이와 함께 김매기을 매고 한 해의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벼베기와 탈곡하

보존회 회원 100여명…명맥 이어

'단오=두레날'로 정해 전 과정 선보여

기, 섬쌓기가 이어진다.

현재 보존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금요일 오후 7시 두차례 모여 맹연습을 한다.

이들은 김포 시민의 날에 시연을 펼치며 단오날을 '두레날'로 정해 두레놀이 전 과정을 펼치고 있다.

4년전부터는 통진종합고등학교를 두레놀이 지정학교로 선정해 큰 행사때는 합동 공연을 벌인다.

통진두레놀이는 지난 1997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98년 도무형문화재로 선정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쇠 윤덕형 옹의 뒤를 이어 박달나무씨(서울시립산업대 2학년)가 갖가지 기예를 익히고 있다.

올해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수회관을 통진면 마송1리 청룡공원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다.

조성연 통진읍장은 "통진두레놀이는 김포의 자랑"이라며 "전수회관을 건립해 원활한 전승·보전과 함께 전통적인 농사짓는 모습을 재현시켜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존회원 70% 이상이 농사에 몸담고 있지만 이탈하는 회원관리가 가장 큰 문제다.

보존회 이진민 회장은 "IMF 이후 농토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며 "지역주민들이 외지로 나갈 경우 인원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포시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안성 남사당과 같이 시립단체로 조직하거나 보존회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회장은 "시 차원에서 회원들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등을 맺어 어릴 때부터 '두레놀이'를 가르쳐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

인터뷰

통진두레놀이 상쇠 윤 덕 현 옹

"두레놀이에 미쳐 한평생 보냈다오"

"놀이에 미쳐서 한 평생을 살았지요"

보존회원들의 신명난 두레놀이 연습 장면을 흐뭇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는 상쇠 윤덕현 옹(70·김포시 통진면 옹정리)이 조용한 미소를 띄운다.

"옛날에는 안성 남사당패와 함께 전국을 누볐지. 그 때는 뭐가 그리 좋은 지 꽹과리만 잡아도 흥이 절로 났어"

김포 옹정리 출신으로 자연스레 농요·두레 풍장과 함께 성장했던 윤옹은 남사당패의 마지막 잽이들인 남문영, 송순갑, 이돌천 등과 함께 전국을 유랑했으며, 1982년 마을로 돌아와 두레패를 조직했다.

주체할 수 없는 끼로 무장한 윤옹은 접시 등을 돌리는 '버나', 12발 상모돌리기, 부포놀음 등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또 경쾌하면서 빠른 김포 특유의 농요에도 뛰어났다.

윤옹은 "나이 탓인지 예전에 잘 부르던 방아타령도 이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로 시작하는 '모내기' 한 구절을 고즈넉히 읊조렸다.

아직도 또렷한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윤옹의 리듬은 한 평생 두레놀이에 흠뻑 빠진 예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윤옹은 3, 4년전까지만 해도 마성·옹정초등학교와 분진중학교, 통진종합중·고등학교 등에서 두레놀이와 농요를 가르치는 열정을 발휘했다.

당시만해도 윤옹은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 어떤 지원도 받지않고 무료 강습을 실시했다.

윤옹은 "내가 어릴때만해도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두레놀이를 했지만 지금은 구경할 기회조차 어렵다"며 "어린이들에게 김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수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